東亞日報

이헌재 기자

‘아름다운 4위’ 장미란, 더 아름다운 챔피언

장미란 선수의 기도

“전 (장)미란 선수가 동메달을 땄으면 좋겠어요. 아테네에서 은메달 땄고, 베이징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동메달만 있으면 ‘금-은-동’ 완성이니까요.”

“아니, 기자님도 참~. 다른 사람들은 다 금메달 따오라고 하는데 무슨 동메달이에요.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장미란과 나눈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동메달을 땄으면 한다’는 기자의 덕담(?)에 장미란은 살짝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데 눈과 달리 얼굴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장미란인 누구인가요. 본인은 썩 내켜하지 않는 별명이지만 당시 ‘여자 헤라클레스’로 불리고 있던 역사(力士)입니다. 역도 여자 최중량급(75kg) 이상 급을 수년 째 평정한 ‘세계에서 가장 힘 센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가까운 은메달을 따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5년 도하 세계선수권을 시작으로 ‘장미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대회부터 2009년 고양 대회까지 세계선수권을 4번 제패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

픽이었습니다. 인상에서 140kg, 용상에서 186kg을 들어 합계 326kg으로 우승했습니다. 2위 선수를 무려 49kg이나 앞선 압도적인 기록이었지요. 그것도 모두 세계신기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이자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유일한 금메달입니다.

사정이 이랬으니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장미란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런던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워낙 압도적이었던 베이징 대회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장미란의 런던 대회 금메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란 선수 바벨에 손키스

하지만 오랫동안 역도를 담당한 기자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장미란과 선수단에서 예전과는 다른 뭔가가 느껴졌거든요.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이나 진천선수촌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올림픽 직전에는 '결단식'이란 것도 열지요. 이런 행사마다 장미란은 대표 선수 자격으로 마이크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얼굴과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올림픽 2연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곤 했지요.

불안감이 생긴 건 취재 차 혼자 역도장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은 수천 kg의 쇳덩이를 들어올립니다. 선수들의 기합소리와 바벨이 지면에 닿는 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지지요. 그런데 제가 역도장에 간 날 장미란은 역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벼운 맨몸 운동과 마사지 등으로 훈련을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감독과 코치들은 "큰 대회를 앞둔 컨디션 조절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반복됐습니다. 한창 자신의 최고 기록 이상으로 중량을 늘려야 할 시기에 장미란은 훨씬 가벼운 무게만 들고 있었습니다.

장미란 선수와 김순희 대표팀 코치

유추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서두에 썼던 장미란과의 대화는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봐 온 장미란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대회에 임하길 바랐던 것이지요. 아마 장미란도 제가 무슨 의미로 동메달 얘기를 꺼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처럼만에 활짝 편 진 그의 환한 얼굴이 대신 답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

장미란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꾹꾹 눌러서 우는 울음이라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고 있는 장미란을 본 건 런던 올림픽 역도 경기가 열린 엑셀 역도 경기장 내 믹스트 존에서였습니다. 장미란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방송 카메라에 등을 돌린 채 벽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마음이 다소 진정됐는지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눈물범벅인 얼굴인데 장미란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인터뷰가 끝나고 신문 기자들을 위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장미란은 갑자기 다시 벽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 나와서 나를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실망시켜 드렸을 것 같아 염려스러워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기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참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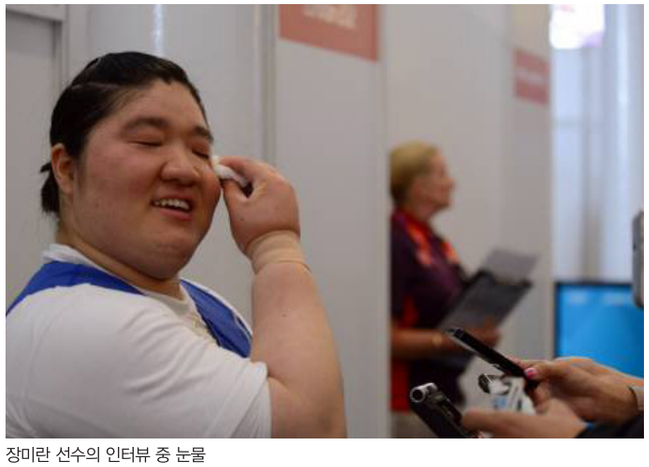
사실 기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한 건 경기 중이었습니다. 역도는 적은 중량을 신청한 선수부터 무거운 중량을 신청한 순서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기자의 불

안했던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은 전광판에 선수들의 신청 중량이 떴을 때였습니다.

장미란의 신청 중량은 전성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장미란은 은메달 선수가 3차 시기까지 모두 마친 뒤에 플랫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차 시기를 성공시키며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의 장미란은, 그것도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장미란의 신청 중량은 다른 여러 선수들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장미란은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향한 세상의 기대는 얼마나 컸던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고, 평소처럼 말하려 했습니다. 방송 마이크가 "금메달 자신있죠?"라고 물으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완전치 않은 몸이었지만 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메달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용상 마지막 3차 시기. 장미란은 170kg을 신청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의 186kg에 비


장미란 선수의 인터뷰 중 눈물

해 16kg나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평소의 장미란이었다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들던 무게였을 것입니다.

어깨까지 들어올리는 '저크'까지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 들어올리는 '클린'만 성공하면 됩니다. 잠시나마 170kg의 쇳덩이가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됐다!!. 하지만 부상 중이던 왼쪽 어깨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역기는 힘없이 어깨 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차 시기 실패. 동메달도 물 건너 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마지막 경기라는 생각이었을까요. 3차 시기에 실패한 뒤 장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바벨을 향해 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 두 손을 꼭 모으고 무릎을 꿇은 뒤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만 하던 기도였지요.

평소 장미란은 "역도는 정직한 운동"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연습 때 안 되던 무게가 실전에서 될 수 없다는 의미였지요. 인터뷰 말미에 그는 "오늘 연습 때 한 것만큼 딱 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장미란의 마지막 올림픽은 그렇게 눈물과 후회, 감사와 미안함이 합쳐진 '아름다운 4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장미란은 미련 없이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장미란재단' 이사장 활동과 함께 그 동안 미뤄뒀던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지요. 2015년 용인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이듬해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더 이상 장미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팬이자 여러 국가대표 선수들의 언니, 누나로서 선수들을 응원했지요.

그런데 리우 올림픽 개막을 얼마 앞두고 국제역도연맹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역도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1명의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중 6명이 메달리스트였지요. 그리고 올림픽 대회를 관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그해 11월에 도핑 선수 12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들이 대회에서 세웠던 모든 메달과 기록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런던 올림픽 역도 여자 최중량급에서 동메달을 땄던 아르메니아의 흐리프시메 크루슈디안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도는 역시 장미란의 말대로 '정직한 종목'이었나 봅니다. 크루슈디안의 메달 박탈로 동메달은 차 순위였던 장미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장미란의 올림픽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세트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지요.

이전부터 장미란은 이미 내 마음속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실력과, 인성, 품성 모든 것이 챔피언에 어울렸지요. 그런 그가 이제는 올림픽 역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딴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 '영원한 챔피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후일담 하나. 장미란은 런던 대회를 마치고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언젠가 사석에서 만나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안 울려고 했다. 그런데 믹스트 존에서 마주친 오래 봤던 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샘이 터졌다"고 하더군요. 선수 앞에서 울었던 그 기자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때 마음으로만 울고 있었거든요.